

3월1일(월)/사도행전11:27~30

제목: 모든 교회가 잘되어야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목회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흉년을 당하여 어려움 속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소개되고 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을 방문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장차 천하게 크게 흉년이 들것이라는 예언을 하였다. 아가보가 예언을 한 시기가 ‘그 때에’ 라고 한 것으로 보아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교회에서 사역하던 1년 사이로 추정이 된다. 그리고 이 예언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루어졌다(27~28절). 따라서 팔레스틴 지역에도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사는 제자들, 즉 이방인 성도들이 구제헌금을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보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도 구제헌금을 작성하여 바나바와 사울 편으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다(29~30절). 이것은 지상의 모든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라는 것을 안디옥 교회가 깨달았기 때문이다. 지상의 모든 교회는 한 가족이다. 가족 중 하나가 아파하는데 다른 한쪽이 가만히 있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도 많은 교회가 있다. 우리는 우리 교회만 내 교회라고 하면 안된다. 저 교회도 내 교회이다.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한 지체이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같이 잘되어야 하고 같이 성장해야 한다.

3월2일(화)/사도행전12:1~19 (1)

제목: 하나님의 방법은 아무도 모른다.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할 때 헤롯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요 지도자들을 죽이기 시작하였다(1절).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기독교인을 죽이려 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야고보였고 야고보는 사도들 중 첫 번째로 순교의 잔을 마셨다(2절). 유대인들이 크게 기뻐하는 것을 보고 고무된 헤롯은 그 다음 대상을 베드로로 잡았고 그를 투옥시켰다(5절). 그러나 이번에는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있는 베드로를 탈출시켰다(7~11절). 왜 하나님께서는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 죽이도록 허락하셨으며 베드로는 소위 기적이라는 방법으로 구해 내셨는가? 베드로를 구하실 수 있었다면 야고보도 역시 구하실 수 있었다. 하나님은 왜 일을 이렇게 처리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완전히 납득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만은 분명하다. 베드로를 건지신 일도 하나님의 지혜로 된 일이요 야고보가 순교한 것도 하나님의 지혜로 된 일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이 일의 전말을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에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현명하게 처리하셨을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것은 오늘 나의 실패와 좌절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3월3일(수)/사도행전12:1~19 (2)

제목: 천사는 오늘도 감옥을 열고 있다

베드로는 일전에 감옥에 갇혔지만 탈출한 적이 있었기에 헤롯은 더 삼엄한 경비를 하였다(4절). 그러나 홀연히 나타난 천사는 베드로를 깨우고 쇠사슬을 풀고 신을 신기고 겹옷을 입힌 뒤 파수병들을 뚫고 감옥 문을 연 뒤 그를 나가게 했다(7~10절). 그리고 베드로는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어머니 집으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12~17절). 날이 새어 베드로의 탈옥 사실을 안 파수병들과 상관들은 일대 소동이 벌어졌다(18절). 베드로는 자신을 구원해 낸 이가 천사라는 사실을 감옥에서 나와 천사가 되돌아갈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9절). 천사의 인도를 받아 한 거리를 지나갔을 때 비로소 흠어진 정신을 가다듬을 수 있었다(10~11절). 그는 비로소 그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였음을 깨달았다. 천사가 쇠사슬을 풀고 옥문을 여는 동안 파수병들도 천사를 보지 못했다. 천사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천사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은 감옥 문들을 열고 있다.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갖가지 감옥 문들을 열고 있다. 모든 천사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얹어매고 있는 쇠사슬과 속박들을 풀라고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다(히1:14).

3월4일(목)/사도행전12:20~23

제목: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못 마땅하게 여겼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그들의 식량 대부분을 유대에서 수입하여 먹었기 때문에 헤롯의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헤롯의 신하인 블라스도의 힘을 빌려 화해하고자 하였다(20절). 이에 헤롯이 응하여 어느 하루 날을 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그런데 이 연설을 듣는 사람 중에 아첨꾼들이 있었다. 유대인들 중에 헤롯의 연설을 ‘신의 소리’라 하였다(21~22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22절)라고 한 것으로 봐서 유대인 중에 그러한 망언을 한 것이다. 한분 하나님만 섬기는 그들이 사람을 신으로 격상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는 이유로 예수님(마26:65)과 스테반(행6:1)을 죽였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얼마나 모순당어리들인가? 헤롯은 오히려 그것을 즐기다가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벌레에게 먹혀죽게 했다(23절). 그들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 헤롯을 신의 위치까지 격상시킴으로 십계명 중 1, 2계명을 어겼다. 우리도 자칫 교회에서 하나님께 보낼 찬사와 칭송을 사람에게 보낼 가능성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3월5일(금)/사도행전12:24

제목: 분쟁의 진원지를 찾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24절) 라는 표현은 사도행전에 세 번 나타나고 있다(행6:7, ; 19: 20). 헤롯이 죽고 난 후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안정을 찾고 복음이 더욱 더 널리 전파되어갔다.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헤롯의 죽음 이후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다. 이처럼 아무리 혹독한 핍박이 와도 교회가 다시 흥왕하여 일어서는 것은 구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다. 헤롯의 갑자기 죽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가 대신 가로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그 한 사람 박해자를 제거하신 것으로 봐야 한다. 교회를 핍박하는 박해자에 대한 심판은 교회의 승리라는 등식으로 연결되었다. 교회 박해의 진원지인 헤롯이 제거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하여 갔다. 사도행전 9장에서도 교회의 핍박자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오자마자 교회가 평안하고 성장하기 시작했다(9:31절).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히 서 갈 수 있는가? 교회 분쟁의 진원지를 찾아내야 한다. 교회 내 헤롯이 없는지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진정시켜야 한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